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35 No.2 Serial No.146 2017.4. 31~45

ISSN(print) 1229-1331
http://dx.doi.org/10.7466/JKHMA.2017.35.2.31

아버지가 지각한 공동양육태도 및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초등학생 자녀의 가사참여의 구조적 관계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Father Perceived Coparenting, Fathers' Involvement and Housework of School-aged Cchildren

송경석(Kyoug Seok Song)[1], 장영은(Young Eun Chang)[2*], 박정윤(Jeong Yun Park)[3]

[1]Department of Child and Youth Studies, Chung-Ang University,
[2]School of Social Welfare, Chung-Ang University, [3]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Abstract>

The current study aimed at examin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coparenting, fathers' involvement in child rearing and the children's participation in housework. 154 fathers and their 5th or 6th grade children living in Jeju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technique. The results revealed that when the fathers reported greater alliance in their coparenting, they we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child rearing. Fathers' involvement significantly predicted greater housework participation of their school-aged children. Higher levels of undermining and gatekeeping in coparenting were associated with less father involvement, which in turn, predicted less housework participation by their children. Gatekeeping also directly predicted lower levels of housework of children. Father involvement significan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parenting and children's housework. The implications for the education/intervention programs promoting coparenting and father involvement were further discussed.

▲주제어(Key words) : 공동양육(coparenting), 협력적 공동양육(alliance), 비협력적 공동양육(undermining), 문지기역할(gatekeeping), 아버지 양육참여(father's involvement), 자녀 가사참여(child's housework participation)

Ⅰ. 서론

현대사회에 들어 맞벌이 가족이 증가하고, 가족의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에서 당연시되던 성별에 따른 가족역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이에 따라 가사 및 육아에 대한 아버지에 참여와 책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양육부담과 스트레스를 줄이고(J. Kim & J. H. Lee, 2005; S. -M. Lee & H.-Y. Min, 2007). 부부 간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를 높여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가족관계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 K. Kim, 2014; D. Terry, T. McHugh, & P. Noller, 1991).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는 자녀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능력,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J. H. Choi, 2002; W. S. Grolnick & M. L.

• 본 논문은 중앙대학교 일반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 Young Eun Chang, School of Social Welfare, Chung-Ang University, 84 Heukseok, Dongjak-gu, Seoul 156-756, Korea, tel: +82-2-812-7261, E-mail: yechang@cau.ac.kr

Slowiacsek, 1994; Y. Kim, 2007; K. W. Kim & I. S. Lee, 1998; M. E. Lamb & C. S. Tamis-Lemonda, 2004; H. -J. Lee, 2004; B. A. McBride, S. J. Schoppe-Sullivan, & M. H. Ho, 2005; M. -S. Yang, 2005). 특히 아동기 자녀의 경우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자녀의 성역할태도가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나(H. H. Jeong & K. S. Choi, 1995), 아버지 자녀 양육이 아동의 현재 및 미래의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가정할 수 있다. 아버지가 자녀 양육이나 가사노동과 같이 가족 내에 존재하는 일상의 과업을 공유하고 분담하는 경우, 자녀의 태도 및 가치관 뿐 아니라, 실제 가족생활 관련 과업에 대한 자녀의 참여 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Y. Hu, 2015). 이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연구의 중요한 주제로 자리잡고 있는 시점에, 아버지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및 자녀에 대한 아버지 양육참여의 영향력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양육을 공유하는 방식이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통해 초등학교 자녀의 가족생활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공동양육태도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매개로 초등학교 자녀의 가족 내 가사참여 정도를 예측하는 개념적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아동기 중기는 성역할에 대한 태도가 정립되고 성역할 태도에 따른 활동선호 및 역할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S. M. McHale, A. C. Crouter, & C. J. Tucker, 1999), 부모의 공동양육과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의해 아동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아동기 자녀의 가사참여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가사노동은 일상생활에서 가정의 기능을 유지해주는 활동으로 가정의 모든 물적·인적자원을 사용하여 가족 구성원의 욕구충족과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이루어지는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S. J. Moon & O. H. Chae, 1998). 자녀의 가사참여는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동시에, 책임감과 사회적 역할에 대해 학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교육적이고 개인발달적인 의미와 함께, 가족구성원 간의 협동심을 높이고, 부모-자녀 간 긍정적 유대관계를 증진하며, 전체적인 가족생활에 기여하는 활동으로서 가족발달적인 시사점도 가진다(S. O. Cho, 2002; H. S. Jang, 2004; S. K. Jeon, 2008; E. -H. Min & S. -M. Kim, 2008; K. Y. Wie, 1992). S. K. Jeon(2008)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대 사회의 부모자녀 간의 관계의 입장에서 아동의 가사참여를 바라보았을 때, 입시 위주의 교육 제도와 자녀를 노동력으로 보지 않는 가치관 등은 아동기 자녀의 가사참여를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집안일이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이나 세대에 관계 없이 가족구성원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하는 과업임을 고려할 때, 가족생활교육의 차원과 바람직한 가족역할의 정립의 차원에서 아동의 가사참여는 교육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아동의 가사노동 참여를 예측하는 원인에 대한 접근은 다양한 각도에서 가능하다. S. L. Cha(2001)은 기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자녀의 가사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부모자녀 간의 의무와 기대 또는 권위와 조직적 구조 등의 사회적 자본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부모의 격려 또한 자녀의 집안일 수행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으며, 부모의 성역할태도나 보상, 역할모델의 제시 등에 의해 자녀의 가사참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실증적인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버지의 가사노동 참여도가 높을수록 자녀가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그리고 가족돌보기 등의 영역에서 가사활동을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 -H. Lee, 2003). 국외 연구에서도 아버지가 가사활동에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아동기 자녀 특히, 남아의 경우 가사참여 시간이 증가함이 밝혀졌다(M. Evertsson, 2006; Y. Hu, 2015).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자녀의 가사활동에 대한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리라는 인과관계의 설정이 가능하다.

특히 Y. Hu(2015)는 아버지의 가사참여가 자녀의 실제 가사참여 행동을 예측하는 기제로 가족이라는 근접 맥락 내에서의 모델링이 작용한다고 보았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자녀의 가사참여를 부모의 가사노동의 분담정도나 시간이라는 구체적인 변인과 연관하여 살펴보았으나, Y. Hu(2015)가 제시한 모델링의 기제를 고려한다면, 보다 광범위하게 부모가 양육과 관련된 역할을 협력적으로 공유하고, 서로의 양육행동을 지지하며, 아버지가 자녀양육과 관련된 과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때, 가족원의 역할에 대한 태도가 보다 유연해지고, 결과적으로 자녀 역시 가족생활의 한 부분인 가사활동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자녀양육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해 부모가 취하는 태도가 아버지의 양육참여라는 과정을 통해 자녀의 가사참여 역시 예측하는 인과적인 경로를 이해할 필요성이 존재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구조적으로 파악한 사례가 미흡하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파악함에 있어 J. H. Pleck(2007)은 아버지가 자녀와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하거나, 하나의 추가적인 사회적 자원으로서 자녀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U.

Bronfenbrenner(1986)의 생태학적 이론과 J. Belsky(1984)의 과정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아버지의 역할을 해석하였는데, 아버지가 가족이라는 맥락에서 하나의 근접과정(proximal process)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즉, 자녀의 발달에 바람직하도록 주변 환경이 구성되어 있을 경우,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그 환경의 영향을 전달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기능한다고 보았다. 이 경우 아버지의 양육과정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가족원과의 관계의 특성이나 가족역할에 대한 태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는 다시 자녀 발달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다. 과정으로서의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M. E. Lamb & C. S. Tamis-Lemonda, 2004). R. Parke(2000)는 체계론적인 관점에서 가치관, 부모됨의 시기, 자녀 기질 등 개인적인 수준의 요인에서부터, 부부관계와 같은 가족수준의 요인, 그리고 직장, 사회, 문화적인 영향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들이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실증적인 연구결과들 역시 소득 및 교육수준, 또는 어머니의 취업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Y. -M. Lee & H. Y. Min, 2007),이나 결혼만족도(J. -Y. Chae, 2011), 성역할태도(J. S. Lee, 2003)와 같은 요인들이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정도를 예측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 정도를 예측하는 다양한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과 정보 및 책임을 부부가 공유하고, 배우자의 양육행동에 대해 어머니나 아버지가 지지 또는 저항하는 정도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M. E. Feinberg, 2003; C. Hoffman & M. Moon, 1999; B. A. McBride & G. L. Brown et al., 2005).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어머니와 자녀, 아버지와 자녀만의 관계를 벗어나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두 포함하는 공동양육(coparenting)의 개념이 등장했다(M. E. Feinberg, 2003; S. Kim & H. -S. Doh, 2001; J. P. McHale, 1997; I. S. Park & E. Y. Nam, 2015). M. E. Feinberg(2003)는 공동양육을 부모가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맺는 관계적 특성을 의미하며, 자녀 양육에서 부모가 나타내는 지지와 조화 또는 방해 및 부조화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공동양육은 개인이 특정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중복 또는 공유되는 책임을 가질 때 발생하며, 가족체계 안에서 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한 팀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정도를 반영한다. M. E. Feinberg(2003)에 따르면 부모가 가지는 공동양육태도는 부모의 태도와 양육 방식을 통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생활요소의 중요한 부분이며, 가족체계 안에서 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한 팀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정도를 반영한다고 하였다. 학자들은 가족체계 내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자녀에게 제공하는 양육행동이 가지는 개별적 영향 뿐 아니라, 부모가 양육과정에서 나타내는 파트너쉽이 부모와 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하며, 자녀의 행동이나 가치관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Y. -S. Byeon, 2012; S. Kim & H. -S. Doh, 2001; I. S. Park & E. Y. Nam, 2015; S. J. Schoppe-Sullivan, A. H. Weldon, J. Claire Cook, E. F. Davis, & C. K. Buckley, 2009).

부모의 공동양육태도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부모의 공동양육태도는 본래 이혼이라는 맥락에서 연구되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아이들과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전 배우자의 지지와, 협력적인 공동양육태도 관계의 중요성을 입증해 왔다(J. Fagan, M. Barnett, E. Bernd, & V. Whiteman, 2003; J. M. Sobolewski & V. King, 2005). 최근 들어서는 이혼부부 뿐 아니라 양부모 가족 내에서 부모의 공동양육의 중요성이 점차 중요시 되고 있으며, 부모가 가지고 있는 공동양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M. E. Feinberg, 2003; S. Kim & H. -S. Doh, 2001; J. P. McHale, S. Salman-Engin, & M. D. Coovert, 2015; S. J. Schoppe, S. C. Mangelsdorf, & C. A. Frosch, 2001). M. E. Feinberg(2003)는 양부모 가족에 적용할 수 있는 공동양육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공동양육태도가 자녀양육 관련 합의, 역할의 분담, 지지 또는 사기저하, 그리고 공동가족관리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이와 유사하게 J. P. McHale(1997)은 공동양육이 가족통합, 질책, 갈등 및 훈육의 영역으로 구성된다고 하였고, J. Fagan and R. Kaufman(2015)은 부모의 공동양육태도를 크게 동맹, 사기저하, 그리고 문지기의 요소들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이 구분에 따르면 문지기역할은 어머니가 아버지의 도움을 거부하거나, 아버지가 담당할 수 있는 양육의 영역까지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 또는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 형성 자체를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면, 사기저하 또는 비협력적 공동양육은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해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등의 태도를 반영하는 영역이다(J. Fagan & R. Kaufman, 2015). 비록 학자에 따른 영역 구분의 차이가 다소 존재하기는 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양육과 관련된 의견의 공유 및 합의, 상대의 양육에 대한 지지나 비난 그리고 배우자의 양육을 제재하거나 방해하는 태도로 공동양육이 구성됨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공동양육에 대한 태도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과 책임이 공평하다고 믿을수록 자녀 양육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밝힌 연구결과가 존재한다(E.-J. Han & S. -A. Kim, 2007). 또한, 부모가 배우자의 양육행동에 대해 지지하거나 사기를 저하하는 정도 역시 공동양육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양육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며, 결정과 권위를 존중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부모에 따라 상대의 양육참여를 지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의 양육에 대해 비난하거나 책임을 물음으로써 양육행동에 대한 사기를 꺾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며, 때로는 서로 양육에서 경쟁적인 태도를 나타내기도 하는 등 다양한 양상이 파악된다(M. E. Feinberg, 2003). 선행연구결과들은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육 및 가사참여를 지지하거나 이에 대한 만족하지 않고,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역할까지 도맡아하는 문지기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양육 및 가사노동에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S. M. Allen & A. J. Hawkins, 1999; M. F. De Luccie, 1995; B. A. McBride, G. L. Brown et al., 2005; S. J. Schoppe-Sullivan, G. L. Brown, E. A. Cannon, S. C. Mangelsdorf, & M. S. Sokolowski, 2008; Y. C. Tu, J. C. Chang, & T. F. Kao, 2014). 국내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태도를 보일 때,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은연 중에 방해하게 되며, 결국 자녀 양육과 관련된 활동에 아버지가 소극적으로 관여한다고 밝혀졌다(J. -Y. Chae, 2011; S. I. Cho, 2010). 또한 부모가 공동양육에서 보이는 조화와 간섭 또는 갈등 등은 자녀의 문제행동(S. J. Schoppe et al., 2001)이나 정서조절(I. S. Park & E. Y. Nam, 2015) 역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이 존재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부모의 공동양육 및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주로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므로, 부모의 양육수행을 관찰하고 사회화할 수 있는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연구의 범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동양육 중 어머니의 문지기역할이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으나, 공동양육의 다른 측면인 협력적인 공동양육태도나 배우자의 사기저하 등 비협력적인 공동양육의 요소를 고려한 연구가 부족하여 공동양육의 다양한 측면이 가지는 개별적인 영향력의 유형을 별도로 살핀 연구가 요구된다. 종합하면, 부모의 공동양육태도가 아버지에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양육태도 및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자녀의 가사참여를 예측하는 인과적인 관계는 부분적으로 밝혀져 왔으나, 이들 변인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부모의 공동양육태도 및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초등학생 자녀의 가사참여 간에 다음의 개념적 모형과 같이 구조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Figure 1>). 연구의 개념적 모형을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부모의 공동양육태도, 아버지의 양육참여, 그리고 자녀의 가사참여 간에 유의한 관계가 존재할 것이다.

연구가설 2. 부모의 공동양육태도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통해 자녀의 가사참여를 예측할 것이다.

2-1. 부모가 협력적 공동양육태도를 가질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증가하며, 이는 자녀의 적극적인 가사참여를 예측할 것이다.

2-2. 부모가 비협력적 공동양육태도를 가질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감소하며, 이는 자녀의 소극적인 가사참여를 예측할 것이다.

2-3. 부모가 문지기 공동양육태도를 가질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감소하며, 이는 자녀의 소극적인 가사참여를 예측할 것이다.

연구가설 3.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부모의 공동양육태도와 자녀의 가사참여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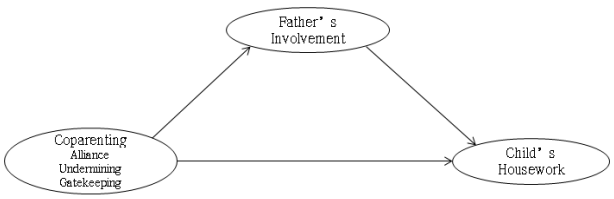

Figure 1. The conceptual model

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과 그들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본 조사 이전에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과 그들의 아버지 각 1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변인별 측정도구의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본 조사는 2016년 6월에

실시하였으며 연구자가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과 그들의 아버지 설문지 각 200부를 배부하였고, 각 154부의 자료를 수거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우선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학년은 5학년 54명(35.1%), 6학년 100명(64.9%)이고, 성별은 남아 86명(55.8%), 여아 68명(44.2%)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직업 분야에서는 사무직 37명(24.0%), 자영업 35명(22.7%), 기능·숙련공 22명(14.3%), 농업·어업·임업 18명(11.7%), 기타 15명(9.7%) 전문직 10명(6.5%), 경영·관리직 9명(5.8%), 판매 서비스직 8명(5.2%)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취업에서는 전일제취업 79명 (51.3%), 전업주부가 47명(30.5%), 시간제 취업 28명(18.2%) 순으로 나타났다. 가계 월평균소득은 300~400만원 이하 43명(27.9%), 500만원 이상 42명(27.3%), 400~500만원 이하 33명(21.4%), 200~300만원 이하 24명(15.6%), 100~200만원 이하 8명(5.2%), 100만원 이하는 4명(2.6%)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핵가족 133명(86.4%), 확대가족 15명(9.7%), 기타 6명(3.8%)이었다.

2. 측정도구

1) 부모의 공동양육태도

부모의 공동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J. Dyer et al.(2015)의 Fatherhood Research and Practice Network Coparenting Relationship Scale를 수정·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3개의 하위변인인 협력적 요인 5문항, 비협력적 요인 3문항, 문지기 요인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의 경우, 문지기 요인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1문항을 제외한 2문항으로 변인을 구성하였다.

하위요인 중 협력적 공동양육태도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대한 행동과 생각을 아내가 긍정적인 반응으로 보이거나 함께 공유·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영역으로 '아내와 나는 서로 자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협력적 공동양육태도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대한 행동과 생각에 대하여 아내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반박하는 내용들로 '아내는 내가 부모로써 하는 행동에 부정적인 발언이나 농담, 비꼬는 말을 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지기 공동양육태도는 아버지가 아내로 인하여 아버지의 역할을 저지 또는 방해받는 내용들로 '아내로 인해 나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힘들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공동양육태도에서 협력적 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 .92, 비협력적 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 .82, 문지기 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 .86 으로 나타났다.

2) 아버지 양육참여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측정하기 위해 Y. -S. Kim(2007)의 아버지 양육참여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4개의 하위변인인 여가활동 9문항, 생활지도 8문항, 가사활동 7문항, 학습지도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긍정적인 참여도를 의미한다.

하위요인 중 여가활동은 자녀와 함께 운동하기, 영화관람하기, 외식하기 등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반영하였고, 생활지도는 자녀에게 남성과 여성의 다른 점 설명하기, 대화의 상대가 되어 주기, 만들기 어려운 일을 함께 돕기 등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지도로 구성하였다. 가사활동은 집안 청소도우기, 고장 난 곳 수리하기, 세탁하기 등 가정생활의 전반적인 활동을, 학습지도는 자녀의 학교 숙제 도와주기, 자녀의 학원 선택 함께하기 등 자녀의 학습적인 지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활동을 반영하였다. 본 연구의 아버지 양육참여에서 여가활동 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 .82, 생활지도 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 .85, 가사활동 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 .81, 학습지도 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 .82 이었다.

3) 자녀의 가사참여

아동의 가사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해 S. O. Cho(2002)이 개발한 가사참여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4개의 하위변인인 의생활 요인 10문항, 식생활 요인 10문항, 주생활 요인 10문항, 가족돌보기 요인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하지 않는다(1점)'에서 '자주한다(5점)'의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가사참여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하위요인 중 '의생활'영역은 스스로 옷을 입고 정리하거나, 입은 옷은 세탁기로 가져가는 내용을 포함하며 '더러워진 옷은 빨래 통에 넣는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생활'영역은 간단한 간식은 스스로 만들어 먹거나 식사 후 남은 반찬은 냉장고에 넣는 등 정리하는 내용들로 '어머니가 안 계시면 밥을 내가 챙겨 먹는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생활'영역은 내 방은 스스로 정리하거나 청소를 하는 등 간단한 정리정돈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며 '내 방 정리를 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돌보기'영역은 부모님의 심부름을 하거나 형제·자매·남매 간 일을 돕는 내용들을 포함하며 ' 가족의 심부름을 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가사참여에서 의생활 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 .79, 식생활 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 .88, 주생활 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 .88, 가족돌보기 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 .84 으로 나타났다.

4) 통제변인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만 연령, 성별, 어머니의 취업여부, 월평균가구소득, 그리고 아버지의 최종학력을 통제변인으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취업=1, 비취업=0의 더미변수로 사용하였고, 아버지의 최종학력은 학력연한(중졸=9, 고졸=12, 전문대졸=14, 대졸=16, 대학원졸=18)으로 변환하여 연속변수로 투입하였다.

3.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공동양육태도가 초등학생 자녀의 가사참여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버지 양육참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아버지가 지각한 공동양육태도와 아버지의 양육참여, 자녀의 가사참여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공동양육태도,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의 가사참여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델링(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위하여 SPSS 23.0과 AMOS 23.0을 활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부모의 공동양육태도, 아버지 양육참여, 가사참여의 상관관계분석

분석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 앞서 분석변인의 기술통계량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공동양육태도의 평균 점수는 2.58(*SD*=2.77)로 나타났고, 하위변인의 평균을 살펴보면, 협력적 양육태도 3.78점(*SD*=4.24), 비협력적인 양육태도 2.15점(*SD*=2.53), 문지기 양육태도 1.8점(*SD*=1.55)으로 공동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 협력적 공동양육, 비협력적 공동양육, 문지기 공동양육 순으로 협력적 공동양육태도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양육참여의 평균 점수는 3.59(*SD*=4.06)로 나타났고, 하위변인의 평균을 살펴보면, 학습지도 3.59점(*SD*=4.06), 생활지도 3.46점(*SD*=5.29), 여가활동 3.43점(*SD*=5.49), 가사활동 3.16점(*SD*=5.02)으로 학습지도, 생활지도, 여가활동, 가사활동 순으로 학습지도에 대한 양육참여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동 스스로 지각한 자녀의 가사참여의 평균 점수는 2.66점(*SD*=8.34)로 나타났고, 하위변인의 평균을 살펴보면, 식생활 2.79점(*SD*=9.62), 주생활 2.78점(*SD*=9.99), 의생활 2.61점(*SD*=7.14), 가족돌봄 2.45점(*SD*=6.62) 순으로 식생활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의 공동양육태도, 아버지 양육참여 및 자녀의 가사참여의 하위변인 간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3>와 같다. 우선 공동양육태도와 아버지 양육참여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의 공동양육태도 하위요인 중 협력적 공동양육태도와 아버지 양육참여 하위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r*=.288에서 *r*=.384의 범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비협력적 공동양육태도와 아버지 양육참여의

Table 1. Measurement of the variables

Variables	Measurement	Subscales	Number of items	Cronbach's α
Coparenting	Fatherhood Research and Practice Network Coparenting Relationship Scale (J. Dyer et al., 2015)	Alliance	5	.92
		Undermining	3	.82
		Gatekeeping	2	.86
Father Involvement	Father Involvement Questionnaire (Y. S. Kim, 2007)	Leisure	8	.82
		Life skills	9	.85
		Housework	7	.81
		Academic	6	.82
Child's Housework	Child's Housework Participation Questionnaire (S. O. Cho, 2002)	Clothes	10	.79
		Food	10	.88
		Home	9	.88
		Family caring	8	.84

하위변인 사이에는 r=-.281에서 r=-.370의 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문지기 공동양육태도와 아버지 양육참여 간의 관계에서는 여가활동과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하위영역과는 약하지만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의 양육참여에 대해 지지와 격려를 더 보이고, 비난이나 방해하는 태도를 적게 보일수록, 아버지는 더 적극적인 양육참여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의 공동양육태도와 자녀 가사참여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부부 간 비협력적 공동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자녀의 가사활동 중 의생활(r=-.188, p < .05), 주생활(r=-.194, p < .05) 및 가족돌봄(r=-.192, p < .05)의 영역에서 참여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협력적 공동양육태도와 문지기 공동양육태도는 자녀의 가사참여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다음으로 아버지 양육참여와 자녀 가사참여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아버지 양육참여 하위요인 중 아버지 가사활동, 생활지도 및 여가활동과 자녀의 주생활 영역의 가사참여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자녀의 가사참여의 수준도 높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아버지의 가사활동 및 자녀의 일상생활과 학업에 대한 관심과 자녀의 가사활동 중 의생활, 식생활 및 가족돌봄에 대한 참여 간에 유의한 상관이 존재하였다.

2. 협력적 공동양육태도, 아버지 양육참여 및 자녀의 가사참여 간의 구조적 관계

본격적인 구조방정식모델링 분석에 앞서, 잠재변인으로 구성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자녀의 가사참여의 변인 구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Variables		Min	Max	M	*SD*
Coparenting	Alliance	1.00	5.00	3.78	4.24
	Undermining	1.00	5.00	2.15	2.53
	Gatekeeping	1.00	4.00	1.80	1.55
Father Involvement	Leisure	1.13	5.00	3.43	5.49
	Life skills	1.00	5.00	3.46	5.29
	Housework	1.00	5.00	3.16	5.02
	Academic	1.16	5.00	3.59	4.06
	Total	1.07	5.00	3.41	4.97
Child's Housework	Clothes	1.00	4.90	2.61	7.14
	Food	1.00	5.00	2.79	9.62
	Home	1.00	5.00	2.78	9.99
	Family caring	1.00	5.00	2.45	6.62
	Total	1.00	5.00	2.66	8.34

Table 3. Zero-order correlations among the analytic variables (N=154)

	1.	2.	3.	4.	5.	6.	7.	8.	9.	10.
1.										
2.	-.545**									
3.	-.320**	.448**								
4.	.311**	-.308**	-.099*							
5.	.384**	-.333**	-.127*	.853**						
6.	.288**	-.281**	-.050	.844**	.870**					
7.	.375**	-.370**	-.259**	.813**	.856**	.789**				
8.	.137	-.188*	-.086	.263**	.271**	.240**	.301**			
9.	.021	-.085	-.114	.130	.116	.117	.159*	.709**		
10.	.073	-.194*	-.143	.266**	.242**	.214**	.264**	.684**	.789**	
11.	.139	-.192*	-.089	.202*	.226**	.169*	.249**	.640**	.755**	.773**

1. Alliance 2. Undermining 3. Gatekeeping 4. Father involvement-housework 5. Father involvement-life skills 6. Father involvement-leisure 7. Father involvement-academic 8. Child's housework-clothes 9. Child's housework-food 10. Child's housework-home 11. Child's housework-family caring

*p < .05, **p < .01, ***p < .001

성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두 잠재변인으로 측정모형을 구성하였다. 측정모형의 분석 결과, 모형적합도는 χ^2=1.827(p=.015), CFI=.974, TLI=.961, RMSEA=.069로 측정모형 구성이 적절함을 나타내었다. 잠재변인에 대한 관측변인의 요인적재량 역시 .72에서 .93의 범주로서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부모의 협력적 공동양육태도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매개로 초등학생 자녀의 가사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바탕으로 결과를 종합한 모형은 <Figure 2>에 제시되어 있다. 이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62.49(p=.093), CFI=.988, TLI=.981, RMSEA=.042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χ^2값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매우 우수하여 제시한 연구 모형이 주어진 자료에 적절하게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모형에 포함된 경로들의 통계적 검증은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가 인식한 공동양육태도가 협력적일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β=.434, p < .05).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초등학생 자녀가 가족 돌봄 및 가정 내 의식주 생활과 관련된 가사 일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93, p < .01). 하지만 협력적 공동양육태도가 자녀의 가사참여에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β=.033, n.s.).

3. 비협력적 공동양육태도, 아버지 양육참여 및 자녀의 가사참여 간의 구조적 관계

다음으로 부모의 비협력적 공동양육태도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매개로 초등학생 자녀의 가사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바탕으로 결과를 종합한 모형은 <Figure 3>에 제시되어 있다. 이 모형의 모델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적합도 지수가 χ^2=62.026(p=.100), CFI=.988, TLI=.981, RMSEA=.042 로 전반적으로 우수하여 제시한 연구모형이 주어진 자료에 적절하게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모델에 포함된 경로들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Table 5>), 아버지가 인식한 어머니와의 공동양육태도가 비협력적일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β=-.672, p < .001).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초등학생 자녀가 스스로 가사 일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51, p < .05). 부모의 비협력적 공동양육태도가 자녀의 가사참여에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β=-.317, 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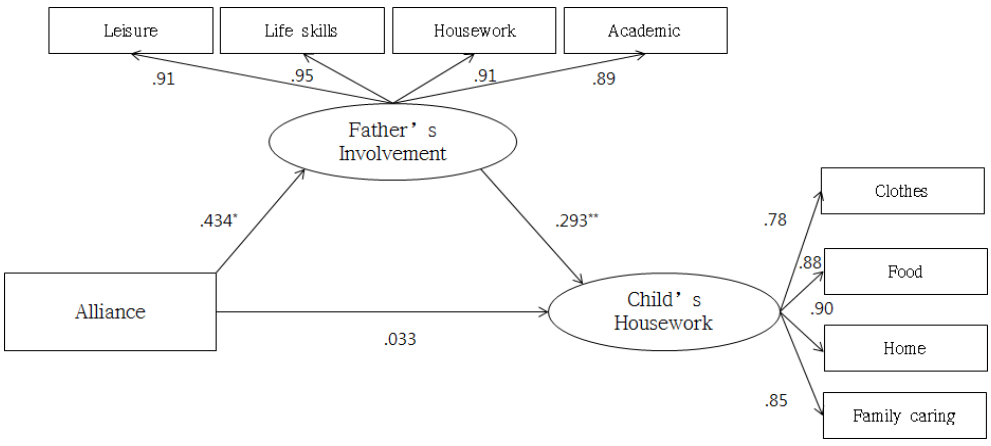

Figure 2. Structural Relations among Alliance, Father Involvement and Child's Housework

Notes. Paths from control variables were included but not shown. All the factor loadings of the latent variables are significant at p < .001. $^{*}p$ < .05, $^{***}p$ < .001.

Table 4. Path Coefficients i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Alliance

Paths	*B*	*S.E.*	β
Alliance → Father involvement	.542*	.092	.434
Father involvement → Child's housework	.268**	.101	.293
Alliance → Child's housework	.034	.116	.033

$^{*}p$ < .05,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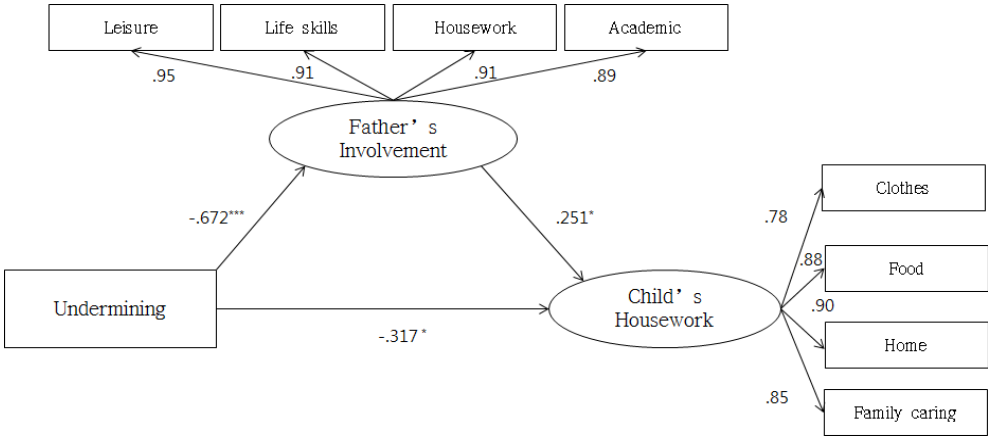

Figure 3. Structural Relations among Undermining, Father Involvement and Child's Housework

Notes. Paths from control variables were included but not shown. All the factor loadings of the latent variables are significant at $p < .001$.
$^{*}p < .05$, $^{***}p < .001$.

Table 5. Path Coefficients i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Undermining

Paths	*B*	*S.E.*	β
Undermining → Father involvement	-.342**	.157	-.672
Father involvement → Child's housework	.233*	.099	.251
Undermining → Child's housework	-.151	.192	-.317

$^{*}p < .05$,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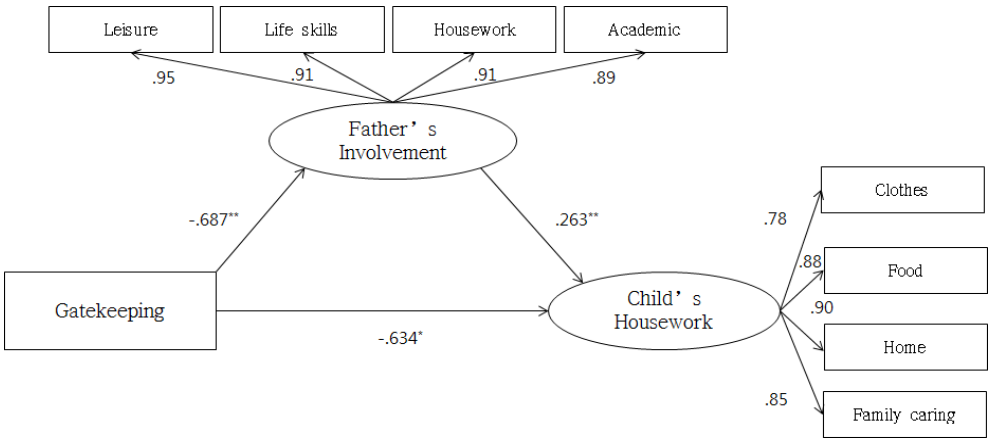

Figure 4. Structural Relations among Gatekeeping, Father Involvement and Child's Housework

Notes. Paths from control variables were included but not shown. All the factor loadings of the latent variables are significant at $p < .001$.
$^{*}p < .05$, $^{***}p < .001$.

4. 문지기 공동양육태도, 아버지 양육참여 및 자녀의 가사참여 간의 구조적 관계

다음으로 문지기 공동양육태도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매개로 초등학생 자녀의 가사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포함하는 분석결과는 <Figure 4>에 제시되어 있다. 이전 모형들과 유사하게 모델적합도는 χ^2=64.09(p=.073), CFI=.986, TLI=.978, RMSEA=.045로 매우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모델에 설정한 경로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Table 6>에 정리되어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공동양육태도에서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Table 6. Path Coefficients i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Gatekeeping

Paths	*B*	*S.E.*	β
Gatekeeping → Father involvement	-.211**	.266	-.687
Father involvement → Child's housework	.237**	.095	.263
Gatekeeping → Child's housework	-.178*	.302	-.634

*p < .05, **p < .01.

Table 7. Decomposition of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Alliance → Child's housework	.252	.097*	.123
Undermining → Child's housework	-.145	-.077*	-.222**
Gatekeeping → Child's housework	-.138	-.051*	-.171*

The statistics are standardized coefficients.
*p < .05, **p < .01, ***p < .001.

방해하거나, 어머니가 아버지의 역할을 가로막는 문지기 역할을 할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β=-.687, p < .01).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초등학생 자녀가 의식주생활을 비롯하여 가족돌봄 등의 가사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63, p < .01). 앞선 두 공동양육태도 변인과는 달리, 문지기 공동양육태도는 자녀의 가사참여에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β=-.634, p < .05).

5. 부모 공동양육태도와 자녀의 가사참여 간 관계에서 아버지 양육참여의 매개효과의 검증

부모의 공동양육태도와 자녀의 가사참여 간의 관계에 있어 아버지 양육참여가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랩(Boostrapping)을 활용하여 간접효과의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공동양육태도 하위변인의 총효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부모의 협력적 공동양육태도(β=.097, p < .05), 비협력적 공동양육태도(β=-.077, p < .05), 어머니 문지기 공동양육태도(β=-.051, p < .05) 모두 아버지 양육참여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버지가 지각한 부모의 공동양육태도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통해 자녀의 가사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초등학생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아버지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제주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154명의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들과 그들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동양육태도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매개로 자녀의 가사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모델링(SEM) 분석으로 공동양육태도, 아버지 양육참여 및 자녀 가사참여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으며, 아버지 양육참여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와 그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가 지각한 부모의 공동양육태도,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의 가사참여에 해당하는 모든 측정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탐색한 결과, 부모 공동양육의 하위척도인 협력적 공동양육태도는 아버지 양육참여의 모든 하위척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비협력적 공동양육태도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문지기 공동양육태도의 경우, 아버지 양육참여 하위요인 일부와 약하지만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의 양육참여에 대해 지지와 격려를 더 보이고, 비난이나 방해하는 태도를 적게 보일수록, 아버지는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버지가 지각한 부모의 공동양육태도와 자녀 가사참여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부부 간 비협력적 공동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자녀의 가사활동 중 의생활, 주생활 및 가족돌봄의 영역에서 참여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협력적 공동양육태도와 문지기 공동양육태도는 자녀의 가사참여와 유의한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자녀의 주생활 영역의 가사참여를 제외하면, 아버지가 가사활동에 적극적이고 자녀의 일상생활 및 학업에 관심을 보이고 참여할 때 자녀들 또한 의생활, 식생활 및 가족돌봄 등

가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아버지가 지각한 부모의 공동양육태도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을 예측하며, 이는 다시 자녀의 가사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협력적인 공동양육태도를 가질 때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증가하며,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는 자녀의 가사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부모가 비협력적 공동양육태도를 가지거나,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육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문지기 역할을 담당할 때, 아버지는 자녀의 양육에 소극적이며, 아버지의 소극적 양육참여는 자녀의 가사참여의 감소를 예측하였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양육에 대한 의견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며,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지지하고 격려할 때, 아버지가 양육과 관련된 가사노동이나 여가활동을 비롯하여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생활 및 학습지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비난하거나 양육참여 자체를 막는 태도를 가질 때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의 행동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의 공동양육태도의 특성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라는 행동적 측면을 통하여 자녀의 가사참여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동양육태도와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간의 유의한 관계를 밝혀 온 선행연구결과(S. M. Allen & A. J. Hawkins, 1999; J. -Y. Chae, 2011; S. I. Cho, 2010; E. -J. Han & S. -A. Kim, 2007; Y. Hwang & H. Kim, 2015; S. J. Schoppe-Sullivan et al., 2008; Y. C. Tu et al., 2014)를 지지하며, 아버지의 가사노동참여가 자녀의 가사노동 시간을 예측한다는 Y. Hu(2015)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함께한다. 예를 들어, E. -J. Han and S. -A. Kim(2007)의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가 자녀 양육이 어머니와 공동으로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인식할 때 실제 양육에 더 많이 참여한다고 밝혀졌다. 또한 어머니가 아버지 양육에 대해 지지적인 태도를 보일 때 아버지의 양육참여 정도가 높아지는 반면(Y. Hwang & H. Kim, 2015),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육을 꺼려하거나 방해하는 문지기 역할을 나타낼 때 아버지의 양육참여(M. Allen & A. J. Hawkins, 1999)와 양육효능감(Y. Hwang & H. Kim, 2015)이 낮아진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 가능하다. S. J. Schoppe-Sullivan et al.(2008)은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관리하는 행동에 따라 실제 아버지가 자녀의 양육에 기여하는 정도가 상이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밝힌 협력적 공동양육태도 및 문지기 역할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간의 관계에 대한 결과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 다룬 비협력적 공동양육태도는 아버지의 역할을 깎아내리거나,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해 조롱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어머니의 행동을 의미하는데, 기존 연구에서는 미흡하게 다루어진 어머니의 특성으로서,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비협력적 공동양육태도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가사노동 시간과 자녀의 가사참여 시간 간의 관계를 밝힌 Y. Hu(201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기존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가사노동 시간을 살핀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가사참여를 포함한 전반적인 양육참여를 살펴 기존의 연구결과를 확대했다고 볼 수 있다. Y. Hu(2015)가 모델링의 기제를 강조하며, 아버지와 자녀 간의 가사참여 행동의 세대 간 전이를 살폈다면,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학습을 돌보거나 자녀와 여가시간을 보내는 등 전반적인 가족생활에 대한 아버지의 관여가 아동기 자녀의 가사참여라는 보다 적극적이고 평등한 가족생활을 촉진함을 시사하는 결과를 보여, 단순한 모델링 뿐 아니라,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자녀의 태도 및 가치관의 형성에 미치는 아버지 역할의 가능성을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도덕적 교사, 경제적 부양자, 성역할의 모델 등의 아버지 역할로부터 현대사회에 들어서 새로운 양육자로서의 아버지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논의한 M. E. Lamb(2007)의 주장을 지지한다. 즉, 자녀 양육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아버지의 역할이 아동기 자녀의 생활습관 형성 및 가족관계의 건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H. S. Jang, 2004; S. K. Jeon, 2008). 동시에 본 연구는 부분적으로 밝혀져 왔던 공동양육태도와 아버지 양육참여, 그리고 아버지 양육참여와 자녀 발달이라는 경로를 연결하여 그 관계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협력적 공동양육태도와 비협력적 공동양육태도는 자녀의 가사참여를 직접적으로 예측하지 않았으나, 아버지가 지각하는 어머니의 문지기 태도가 강할수록, 자녀의 가사참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방해하거나, 어머니가 양육을 전담하려는 행동에 자녀가 노출될수록 자녀 역시 가정 내에서 스스로 담당하거나 일부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사노동에 대한 분담을 보류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선행연구들은 교육이나 중재를 통해 부모의 공동양육태도에 변화를 줄 수 있으며, 공동양육에 대한 중재프로그램이 성공적일 때,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증가한다는 결과도 제시하고 있다(Y. H. Cha, 2013; J. P. McHale, M. R. Waller & J.

Pearson, 2012; A. F. Shapiro, E. Y. Nahm, & J. M. Gottman, 2011). 또한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중재프로그램이 아버지 자신 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J. Fagan & A. Iglesias, 1999), 다양한 교육, 상담 또는 중재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전체적인 가족관계 및 가족생활의 질적 수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아버지가 지각한 부모의 공동양육태도와 자녀의 가사참여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협력적 공동양육태도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정적으로 예측하고, 비협력적 양육태도와 문지기 태도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부적으로 예측하며,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다시 자녀의 가사참여 정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부모가 자녀양육의 과정에서 상대의 양육에 대해 지지를 보내고, 비난하는 태도나 양육참여를 방해하는 태도를 적게 보일 때,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이 높아지며, 이는 곧 자녀의 가사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자녀 또한 다양한 가사활동에 참여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보다 광범위한 맥락의 특성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하나의 과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J. H. Pleck(2007)의 해석을 지지한다.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 정도는 아버지의 개인적 특성이라기보다는, 가족관계의 성격에 의해 영향을 받는 동시에,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는 근접과정(proximal process)으로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시사하는 연구결과이다.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결혼관계의 특성(G. Bouchard & C. M. Lee, 2000; S. Kim & H. -S. Doh, 2001)이나 부부 간 의사소통(M. Jeong, S. K. Kang, & M. J. Kim, 2015), 또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관리(J. -Y. Chae, 2011)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예측한 것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양육에 대한 부모의 태도 역시 양육참여를 통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였다. 종합하면, 부모 간 의사소통과 긍정적인 부부 관계가 보다 협력적인 공동양육태도를 통해 자녀에게 긍정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추후연구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관련 변인을 동시에 고려한 분석이 실시된다면 현대 사회에서 중요시 되고 있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설명하는 흥미로운 기제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설명하는 변인과 아버지가 자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탐색한 연구로서 의의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아동기 자녀가 가사일에 참여하는 것이 개인적 발달 뿐 아니라 가족생활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기존의 주장(H. S. Jang, 2004; S. K. Jeon, 2008; E.-H. Min & S. -M. Kim, 2008)을 고려할 때, 자녀의 가사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살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끝으로,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아버지와 그 자녀를 함께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 역시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내에 거주하는 아버지와 자녀만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에 대해 지역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타당화 작업 및 요인분석을 별도로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척도의 타당성에 있어서 한계점을 가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지각한 부모의 공동양육태도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각하는 공동양육에 대한 인식의 차이 역시 아버지의 양육수행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었으므로(E.-J. Han & S. -A. Kim, 2007), 추후 연구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를 연결하는 보다 심도 있는 관계를 설정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즉, 공동양육태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역시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대상으로 공동양육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여 자기상대방상호의존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 등을 적용한 분석을 수행한다면 부모의 공동양육태도의 영향력을 보다 풍부하게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의 공동양육태도의 측정을 위해 해외에서 개발된 척도를 활용하였다. 변화하는 부모의 공동양육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최근에 개발된 척도를 선정하였고, 전문가의 심도 있는 검토와 예비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상황에 맞도록 수정하였으며, 조사 결과 신뢰도 역시 우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가족관계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괄하는 공동양육 평가척도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고, 가족 내 아버지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교육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학문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Allen, S. M., & Hawkins, A. J. (1999). Maternal gatekeeping: Mothers' beliefs and behaviors that inhibit greater father involvement in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1), 199-212.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Bouchard, G., & Lee, C. M. (2000). The marital context for father involvement with their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Prevention & Intervention in the Community, 20*(1), 37-54.

Bronfenbrenner, U. (1986). Ecology of the family as a context for human development: Research perspectives. *Developmental Psychology, 22*(6), 723-42.

Byeon, Y.-S. (2012).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n adolescents' runaway impul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kottongnae University. Chungbuk, Korea.

Cha, S. -L. (2001). A study on the mothers satisfaction about their children's household work performanc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9*(1), 17-31.

Cha, Y. H. (2013). Effects of the cooperative parenting program on the Anger, psychological well-being.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4*(4), 2163-2174.

Chae, J.-Y. (2011). Paternal parenting behavior and its related variabl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9*(5), 75-83.

Cho, S. I. (2010). *The effects of mothers' employment and maternal gatekeeping on father invol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nmen's University, Seoul, Korea.

Cho, S. O. (2002). *A study of how pre-teenagers may effect creating an ideal household affairs improvement and recogni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Korea.

Choi, J. H. (2002). *Relations among paternal involvement, parenting behaviors, and children's peer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De Luccie, M. F. (1995). Mothers as gatekeepers: A model of maternal mediators of father involvement.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6*(1), 115-131.

Dyer, J., Fagan, J., Kaufman, R., Pearson, J., & Cabrera, N. (2015). *Fatherhood Research and Practice Network coparenting relationship scale.* Philadelphia, PA: Fatherhood Research and Practice Network.

Evertsson, M. (2006). The reproduction of gender: Housework and attitudes towards gender equality in the home among Swedish boys and girls.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7,* 415–436.

Fagan, J., Barnett, M., Bernd, E., & Whiteman, V. (2003). Prenatal involvement of adolescent unmarried fathers. *Fathering, 1*(3), 283-301.

Fagan, J., & Iglesias, A. (1999). Father involvement program effects on fathers, father figures, and their Head Start children: A quasi-experimental study.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4*(2), 243-269.

Fagan, J., & Kaufman, R. (2015). Co parenting relationships among low income, unmarried parents: Perspectives of fathers in fatherhood programs. *Family Court Review, 53*(2), 304-316.

Feinberg, M. E. (2003). The internal structure and ecological context of co-parenting: A framework for research and intervention.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3,* 95-131.

Grolnick, W. S., & Slowiaczek, M. L. (1994). Parents' involvement in children's schooling: A multidimensional conceptualization and motivational model. *Child Development, 65*(1), 237-252.

Han, E. -J., & Kim., S.-A. (2007). A study on fair parental role model of dual earner couples, their expectation for parental nursing capability and real nursing practic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5*(2), 37-46.

Hoffman, C., & Moon, M. (1999). Women's characteristics and gender role attitudes: Support for father involvement with children.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0,* 411-418.

Hu, Y. (2015). Gender and children's housework time in China: Examining behavior modeling in contex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7*(5), 1126-1143.

Hwang, Y., & Kim, H. (2015). Married couple's perception of mother's gatekeeper role and father's involvement and efficacy in childrear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10*(2), 55-73.

Jang, H. S. (2004). *A study on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recognition and participation of household work.*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Korea.

Jeon, S. K. (2008). Reconceptualization of chores per-

formed by child and its educational meanings and implications on the future direction of 'The division of labor in the family' in the practical art education. *The Journal of Practical Education, 21*(4), 65-85.

Jeong, H. H., & Choi, K. S. (1995). Father's child-rearing behaviors, children's sex-role taking, children's emotional responses and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6*(1), 33-47.

Jeong, M., & Kang, S. K., & Kim, M. J. (2015). The Effect of marital communication on paternal involvement in infant childrearing : The mediating effects of father's parenting efficacy.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92,* 19-40.

Kim, J. K. (2014). Correlation between parenting participation of husbands and marital satisfaction of wives during transition to parenthood -with the mediation effect of self: Efficacy and depression. *Asian Journal of Child Welfare and Development, 12*(1), 1-17.

Kim, J., & Lee, J. H.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rearing and mother's child rearing stres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6*(5), 245-261.

Kim, K. W., & Lee, I. S.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 rearing involvement of fathers and children's social-emotional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9*(2), 65-78.

Kim, S., & Doh, H.-S. (2001). The correlates of coparenting: Marital quality, mothers' personality, and childrens' initial temperament.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9*(5), 101-114.

Kim, Y.-S. (2007). *The effect of the father's participation level in child-rearing on the sociability of a child.*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ju University, Jeju, Korea.

Lamb, M. E., & Tamis-Lemonda, C. S. (2004). The role of the father: An overview. In M. E. Lamb(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John Wiley & Sons.

Lee, H.-J. (2004). *The effect of father's child rearing attitude and involvement on their children's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Seoul, Korea.

Lee, J. S. (2003). The influence of the sex role and the concept of children among fathers' of infant children: In relation to fathers' involvement in child care. *Journal of The Korean Open Association for Childhood Education(), 7*(4), 53-67.

Lee, S.-H. (2003). *Housework-consciousness and its participation according to the consciousness of the equality of the sexes in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Gyeongbuk, Korea.

Lee, S.-M., & Min, H.-Y.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chooler's temperament,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and mother's child-rearing stres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6*(2), 219-225.

Lee, Y.-M., & Min, H.-Y. (2007). The influence of family socio-democratic variables and preschoolers' Temperaments on fathers' involvement in child-rearing.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4*(4), 93-101.

McBride, B. A., Brown, G. L., Bost, K. K., Shin, N., Vaughn, B., & Korth, B. (2005). Paternal identity, maternal gatekeeping, and father involvement. *Family Relations, 54*(3), 360-372.

McBride, B. A., Schoppe-Sullivan, S. J., & Ho, M. H. (2005). The mediating role of fathers' school involvement on student achievement.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6*(2), 201-216.

McHale, J. P. (1997). Overt and covert coparenting processes in the family. *Family process, 36*(2), 183-201.

McHale, J. P., Salman-Engin, S., & Coovert, M. D. (2015). Improvements in unmarried African-American parents'rapport, communication, and problem-solving following a prenatal coparenting intervention. *Family Process, 54*(4), 619-629.

McHale, J. P., Waller, M. R., & Pearson, J. (2012). Coparenting interventions for fragile families: What do we know and where do we need to go next? *Family Process, 51*(3), 284-306.

McHale, S. M., Crouter, A. C., & Tucker, C. J. (1999). Family context and gender role socialization in middle childhood: Comparing girls to boys and sisters to brothers. *Child Development, 70*(4), 990-1004.

Min, E.-H., & Kim, S.-M. (2008). Path analysis of adolescent participation in household work. *Journal of th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6*(6), 33-48.

Moon, S. J., & Chae, O. H. (1998). *Household works. sinkwang.*

Park, I. S., & Nam, E. Y. (2015). Relations among coparenting, father involvement in child-rearing, and

toddler"s emotion regulation.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8*(4), 135-153.

Parke, R. (2000). Father involvement, *Marriage & Family Review, 29*(2-3), 43-58.

Pleck, J. H. (2007). Why could Father Involvement Benefit Children?: Theoretical Perspectives.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11*(4), 196-202.

Schoppe, S. J., Mangelsdorf, S. C., & Frosch, C. A. (2001). Coparenting, family process, and family structure: implications for preschoolers'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5*(3), 526-545.

Schoppe-Sullivan, S. J., Brown, G. L., Cannon, E. A., Mangelsdorf, S. C., & Sokolowski, M. S. (2008). Maternal gatekeeping, coparenting quality, and fathering behavior in families with infant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3), 389-398.

Schoppe-Sullivan, S. J., Weldon, A. H., Claire Cook, J., Davis, E. F., & Buckley, C. K. (2009). Coparenting behavior moderates longitudinal relations between effortful control and preschool children's externalizing behavior.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0*(6), 698-706.

Shapiro, A. F., Nahm, E. Y., & Gottman, J. M. (2011). Bringing baby home together: Examining the impact of a couple focused intervention on the dynamics within family pla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1*(3), 337-350.

Sobolewski, J. M., & King V. (2005). The importance of the coparental relationship for nonresident fathers' ties to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 1196–1212.

Terry, D. J., McHugh, T. A., & Noller, P. (1991). Role dissatisfaction and the decline in marital quality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43*(3), 129-132.

Tu, Y. C., Chang, J. C., & Kao, T. F. (2014).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maternal gatekeeping and paternal involvement in Taiwan.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22,* 319-328.

Wie, K. Y. (1992). *A study on teenager's sense of housework participation and housework performance with housework valu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nmen's University, Seoul, Korea.

Yang, M.-S. (2005). *The correlational relationship among father involvement in child rearing, child self-efficacy and child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won University, Kyeonggi, Korea.

☐ Received: January 12. 2017
☐ Revised: March 29. 2017
☐ Accepted: April 17. 2017